

창세기(16)

이 아침에도 다시 한 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주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어기고 거꾸로 돌아가면서도 알지 못하고 교회마저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질서를 무시하고 행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오히려 무식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주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끝까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핍박을 받으리라.” 바로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안에 핍박을 받을지라도 주님 만날 때 영광스러운 만남을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므로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창세기 3 장 1 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에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 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사탄이 이 땅에 있으며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으며 옛날 에덴동산에 있었던 이브와 아담을 유혹한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그들이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옛날 한 번의 실수가 우리에게서 축복이 되고 사탄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 술책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대적하여 이길 수 있도록 무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사실 이 창세기 3 장 1 절 말씀에 사탄이 질문한 말 속에는 엄청난 음모, 즉 세상에 죄를 가져와서 자기처럼 사람들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자기 수하에 두려는 음모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탄은 항상 말을 꺼낼 때 의문문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사탄은 옛날 하늘과 땅을 왕래하며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가 얼마나 나를 두려워하는지 네가 알지 않느냐?” 그럴 때도 사탄은 “그가 까닭 없이 주를 두려워하니까?” 하며 하나님께도 의문을 내세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한테까지도 의문을 내세우는 존재인데 우리에게 못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사탄의 술책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나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접근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사탄이 어디 있느냐?” 사탄, 뱀, 마귀라는 말을 하면 어딘가 무식하고 이견 좀 인텔리젠트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유명한 목사님일수록 사탄, 마귀, 용과 같은 얘기, 지옥 얘기, 죄에 대한 얘기를 더 이상 안 하고 완전히 속아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존재가 성경에 분명히 사탄이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항상 성경 말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의문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사탄이 질문하는 것을 보면,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의심을 품게 하려면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할 수도 있고,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똑같은 의문문인데 얼마든지 강조를 해서 사람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브가 대답한 것을 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고 바로 나오지요. 이렇게 사탄의 의문문은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법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대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보면 거짓말 속에 진짜 말이 3/4 은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말을 하면서 약간 꼬리를 흐리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속겠습니까? 그래서 사기꾼들은 말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말을 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다 속습니다. 요즘에 읽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순종도 안 하니깐 다 밥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오스트레일리아 목사님이 미국에 와서 교회를 방문해보니까 다들 사탄에게 꼭 메여 포박되어 앉아 있는데 그게 무슨 예배냐고 하더라고요.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묶여 있다 이거예요. 묶여 있는 상태로 들어가서 쇠사슬로 칭칭 감아져서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창세기 3 장을 공부하면서 정말 깨닫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구상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했고 우리가 오늘 들었듯이

의문을 제기하니깐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더하고 변화시킨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탄은 사람들을 신처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교주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교주가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교주의 특성은 하얀 옷을 입어요. 그리고 구두도 하얀색을 신어요.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뱀이 나타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사탄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탄의 종들 가운데는 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처럼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영어로 소위 no sweat 입니다. 땀 흘리면서 사탄이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의 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만 하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속이는 말이 막 나옵니다.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탄의 계략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물질문명이 발달했다고 해서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는 이 시대에 사탄이야말로 실제적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이 사탄이란 존재는 종교라는 태두리 안에 숨어서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뱀이 더욱 간교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뱀이 나타났을 때에는 아마 빛의 천사로 나타났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11 장을 보면 사탄이 빛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12 절로 13 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뱀이 분명히 파충류인데 “짐승들 중에서 더욱 간교하더라.”고 했습니다. 뱀과 짐승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지난번 보았던 2 장에서 아담에게 모든 생물들을 데려왔는데 거기 파충류는 빠졌다고 했지요? 노아 홍수 때 보면 기는 것까지도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에스겔 1 장이나 10 장을 보면 사탄의 원래 존재는 덮는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지요. 그룹은 날개가 양쪽에 세 개씩으로 날개가 전부 여섯 개입니다. 스랍은 날개가 양쪽에 두 개씩으로 네 개입니다. 스랍은 바로 성전에 이사야가 있을 때 나타났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생물은 그룹이지요. 그런데 사탄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을 보면 법궤를 그룹이 덮고 있어요. 그룹을 나무로 만들어서 금을 입혔는데, 이 그룹은 에스겔 1 장에 모양이 황소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황소가 빠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룹이 네 생물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고 하나는 사자 같다. 각각 들짐승, 날짐승, 가축, 사람을 대표합니다. 모든 창조물을 대표하는 거예요.

위에 파충류를 대표하는 덮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황소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자 사람들이 아론에게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 35 장이요. 금을 집어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다고 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던지니까 송아지가 특 튀어나왔다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겠습니까? 금을 던졌는데 송아지가 튀어나왔으니 말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안 섬기겠습니까? 요즘에 그런 일이 있어 보세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 집회는 사람이 메어질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뱀하고 황소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므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황소와 뱀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LA 에 도착하니까 집에 갈 때 마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뭘니까? 기억나세요? 화이어플레이스(Fire Place)에 보면 꼭 황소 뿔이 있어요. 자기들이 거기다 그것을 왜 가져다 놓은 지도 모릅니다. 황소 뿔을 왜 거기다 놓았을까요? 여러분 카우보이들이 말이죠. 다 그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술책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면 그것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남들이 갖다 붙여놓으니까 소뿔을 갖다 붙여 놓는 거예요. 황소 뿔을 말이죠. 여러분, 인도에 가보세요. 소를 신으로 섬기잖아요? 빨리 잡아먹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잡아먹으면 배부르게 먹을 텐데 그것을 신으로 섬겨서 먹지 못하고 굶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 만약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그것들을 잡아 고기부터 먹게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순교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2 장에 보니까 그가 여자에게 말하는데, 사탄의 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마음 판에 새긴 사람보다도 제대로 듣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집에서든 가족 중에서도 남편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아내가 그렇지 않으면 아내에게 역사하고, 아내가 그러면 남편에게 역사하고, 부모가 신실하면 자녀에게 역사하고, 사탄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거나 알아도 대충 아는 사람한테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브는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시다. 왜냐하면 이브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의 지식에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브는 틀림없이 남편으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말씀을 의문문으로 하니까 거기에 대답을 한 거죠. 그 당시에는 사람이 아담밖에 없으니까 누가 얘기해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브는 듣기는 들었는데 남편을 통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동물들이 창조물들이 흙에서 나왔는데 여자만큼은 흙에서 안 나오고 뼈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원래 재료는 흙이었지만 여자들은 뼈에서 나왔어요. 참 희한하지요? 흙에서 직접 만들어지지 않은 유일한 존재가 여자 분들이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다시 1 절로 돌아가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방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의문문으로 제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오셨을 때도 마귀가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얘기는 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돌덩이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그렇게 마음대로 가지고 놀리는 존재, 그 루시퍼가 말이죠. 우리 하나 못 건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했어요. 악한 날에 능히 사탄을 대적하고 능히 설 수 있게 하신다. 그것이 뭘니까?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가 뭘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필요한 만큼 계시하신 66 권의 성경 말씀을 훤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허리띠거든요. 여러분 허리띠가 없어 보세요. 아무리 총을 잘 쏘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뛰어다니겠습니까? 말을 타겠습니까? 낮은 포복을 하겠습니까? 높은 포복을 하겠습니까? 허리띠 빠지면 그건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허리띠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그러니 진짜 허리띠를 주셨는데 왜 메질 않는 겁니까? 우리에게 허리띠를 다 주셨습니다.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정말 무궁무진하죠. 의의 흉배,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수가 무궁무진하니까 항상 우리 마음을, 가슴속을 깨끗하게 하라. 이것은 이미 주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은 뭘니까? 화평의 복음의 신발! 복음도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항상 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만 열면 나와야 합니다. 그런 다음 악한 자들의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끌 수 있도록 방패로 미리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내 몸에 화살이 먼저 꽂히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